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 나타난 소유와 부 개념

오아론
(서울대학교 철학과)

1. 들어가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소유와 부는 대체로 동일시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추진하는 힘으로 일컬어지는 ‘소유욕’은 ‘부에 대한 욕망’과 다르지 않으며, 그와는 반대로 ‘무소유’는 ‘자발적 가난’과 다름없이 반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의 모토로써 일컬어진다. 소유와 부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개념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¹⁾

1) 소유(所有)의 한자어를 풀이하면 ‘장소의 가짐’이고, 부(富)는 집(家)와 노예를 뜻하는 입(口)과 땅을 뜻하는 밭(田)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따라서 번역어로 쓰이지 않는 소유와 부는 본래 유형자산으로써 거의 같은 의미의 한자어원을 갖는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소유와 부는 각각 ‘property’와 ‘wealth’의 번역인데, property에 비해 wealth는 (well-being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실체적 대상을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상태나 무형 자산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유(property)의 의미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장되었다. “우리는 ‘소유’란 단어를 말할 때 흔히 부동산, 은행계좌, 주식과 채권 등과 같은 물리적 개체를 떠올린다. 그러나 사실상 그 의미는 훨씬 광범위하다. 이제는 신용,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무형 자산까지 확대되고 있다. …… 17~18세기에 서양에서는 삶과 자유와 같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정도로 상당히 총체적 의미에서 소유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리처드 파이프스, 서은경 역, 『소유와 자유』, 나남, 1999, p.10.) 소유 개념이 확장되면서 소유와 부는 동일시되기에 이르렀고, 아렌트에 따르면 이는 ‘근대적’ 현상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소유 개념은 오늘날의 확장된 소유 개념이 아니라 한나 아렌트가 고대 그리스 전통에 입각하여 나름대로 재정의한 것이다.

더 많은 소유 혹은 부의 획득은 현대인들이 제일가는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정치에의 무관심이라는 사회적 문제와도 연관된다. 개인들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에만 몰입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인 세계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이는 곧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는 것 같다. 하지만 한나 아렌트는 이와 반대로 소유의 상실은 정치에의 무관심을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현재의 상식과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 않는가? 이러한 모순은 우리의 상식적인 소유 개념이 아렌트의 소유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소유(property)와 부(wealth)는 결코 같지 않으며 전적으로 다른 본질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²⁾ 그의 저서 전체에 걸쳐 소유와 부는 일관되게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 둘은 어떻게 다른가? 그의 이론에 있어서 이 개념의 차이는 왜 중요해지는가? 소유와 부의 개념은 주제화되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여러 장에 걸쳐 산발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그로 인해 비교적 불명료하게 드러나는 이 두 개념의 차이를 더욱 명료하게 밝혀보고, 그럼으로써 그 두 개념이 한나 아렌트의 정치 이론에 기여하는 바를 고찰하는 것이 본 소논문의 목적이다.

우선 2장에서는 『인간의 조건』에서 소유와 부 개념이 출현하는 맥락으로써 공적 영역(public realm)과 사적 영역(private realm)의 구분을 살펴볼 것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아렌트 사상 전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영역의 구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방식을 두 가지로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생각하기에 이 둘 모두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조건이다. 아렌트의 소유 개념은 이 두 영역을 아렌트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차츰 드러나게 된다. 그 다음 3장에서는 소유 개념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소유 개념과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지는 부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5장에서는 소유가 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공론 영역과 사적 영역

2)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p.115.

이 소멸하고 그 자리를 제 3의 영역인 사회적 영역이 대신하게 되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인간의 조건』에서 소유와 부 개념이 출현하는 맥락 -공론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의 서론에서 이 저서의 집필 목적을 밝히며 이렇게 말한다. “인간조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영속적이며 인간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상실될 수 없는 일반적 인간능력을 분석하는 데 나의 논의를 제한하겠다.”³⁾ 인간은 변경될 수 없는 어떤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이 아렌트 저서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이다. 조건 하에 있다는 것은 무언가에 제약받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간존재가 정확히 어떤 조건들로 인해 제약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알지 못한다면, 인간의 조건을 인간 스스로 변경시키거나 벗어나려는 바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바람은 인간 존재의 지위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렌트가 보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인간조건에 따르는 인간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고 있지 않으며, 그 병폐의 정점에는 행위의 소멸, 다시 말해 진정한 정치의 소멸이 있다. 그는 잊혀져가는 진정한 인간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가 폴리스 시민들의 삶에 눈을 돌린다.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라”,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들이 불사 불멸의 존재가 되도록,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고의 것에 따라 살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⁴⁾

3) 위의 책, p.54.

4) 아리스토텔레스,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제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인간이 탄생과 죽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멸적 존재인 동시에 불멸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불멸성에 대한 추구는 활동적 삶의 원천이자 중심이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과제이자 잠재적 위대성은 존재할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산출한다는 것, 즉 작업, 행위, 언어의 능력을 가진다는 점에 있다.”⁵⁾ 그러나 인간은 오로지 불멸성을 추구하는 활동만을 하며 살 수는 없다. 잠재적으로 불멸적인 존재라고 해서 인간이 삶의 과정에 매여 있는 생물학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침범할 수 없는 두 가지 존재의 질서가 인간의 삶을 구성한다. 하나는 생물학적 삶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삶이다. 이를 아렌트는 사적인 삶, 공적인 삶으로 구분한다. 이는 일상의 삶, 시민의 삶으로 바꾸어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영역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으로 이분화 된다. 이 두 영역은 서로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는 대립적인 관계인 동시에 그러한 분리가 서로의 영역을 온전히 보존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상호보완적이다.

2.1 공적 영역(Public Realm)

공적 영역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말과 행위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폴리스의 영역에 상응한다. 즉, 공적 영역은 정치적 영역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치적 삶(bios politikos)은 행위(praxis)와 언어(lexis)로 구성된다.⁶⁾ 그런데 정치적 행위는 “말을 통해 실행”되며, 더 나아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발견하는 것이 행위”이다. 그러므로 행위와 언어의 외연은 동일하다.⁷⁾ “언어와 행위는 동시대적이고 동등한 것이자 동일한 지위와 중

복스, 2006, p.372.

5)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69.

6)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77.

7) 이은아,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표현과 소통의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류에 속하는 것”⁸⁾이다. 말을 통해 설득하는 행위만이 공적 영역에 속하며, 힘과 폭력을 통한 강제는 공적 영역에 속할 수 없다.

정치적이라는 것, 즉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⁹⁾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타인을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행위는 목적과 수단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목적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목적을 가지는 것을 거부해야 하기 때문에, 무목적적인 말과 설득만이 유효한 행위가 된다. 목적이 없음은 어떤 필요에도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어떤 필요에도 매여 있지 않을 때만이 말과 행위 그 자체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러한 무목적적인 드러남의 공간이 공적 영역이다. 독일어의 공적(öffentlich)이라는 말은 “청중(publicus) 혹은 단체 앞에서 말하다”는 의미를 지닌다.¹⁰⁾ 나의 주관을 벗어나 말과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드러날 때에만 나와 세계의 실재성(Wirklichkeit)이 확보된다. 아렌트에게 있어서 실재성이란 다양한 관점 속에서 획득되는 객관성과 같다. 따라서 나의 주관 속에 머물러 있거나, 타인의 강제에 의해 단 하나의 관점만이 허용된다면 실재성을 획득할 수 없다.

‘공론 영역의 실재성’은 수많은 측면과 관점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측면과 관점들 속에서 공동세계는 자신을 드러내지만, 이것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척도나 공통분모는 있을 수 없다. 공동세계가 모두에게 공동의 집합장소를 제공할지라도,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위치는 상이하다. 두 대상의 위치가 다르듯이 한 사람의 위치와 다른 사람의 위치는 일치할 수 없다. 타자에 의해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각자 다른 입장에서 보고 듣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적 삶의 의

2005, p.14.

8)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78.

9) Loc.cit.

10) 박혁, 『정치 현상으로서의 자유』,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10, p.430.

미이다.¹¹⁾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감정이나 신체적 감각들은 그 자체로는 강렬하지만 비현실적이다. 현실성 또는 실재성은 항상 타인의 현존에 의존한다. 따라서 타인과 함께 행위하지 않으므로 공적 영역에 속해있지 않은 인간은 세계와 인간, 그리고 나 자신조차 실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말과 행위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인간은 물리적 존재를 초월하여 인격적 존재가 된다. 인간 사이에서 행위하는 인간만이 진정한 인간인 것이다.

공적 영역은 현실성을 확보해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멸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공적 영역이 그 자체로 세계이기 때문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세계일 수 없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자연의 무상성에 거역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에 대항하여 인위적 세계를 세운다. 그리하여 자신이 머물다 가고 나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 세계로 하여금 파멸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위대한 업적과 행위를 그대로 보존하게끔 한다. “그리스인에게 폴리스는 무엇보다도 개인적 삶의 무상성에 대한 보증”이었다.¹²⁾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각기 상이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인정받은 위대한 성취가 불멸을 누리는 세계적 공간이 공적 영역이다.

2.2 사적 영역(Private Realm)

사적 영역은 인간이 생물학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즉, 사적 영역은 자연이 부과한 삶의 필연성을 해결하는 공간으로써 고대 그리스의 가정(oikia)에 해당한다. 무목적적 활동인 행위가 이루

11)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10.

12)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09.

어지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사적 영역에서는 인간 삶에서 가장 절박한 필연성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여타 동물들과 다르지 않는 단순한 욕구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므로 저차원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자신의 몸을 벗어날 수 없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개체 유지와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 하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나타날 수 없다. 가정이 여러 사람의 모임인 이유는 동물이 무리지어 살 듯 다만 그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을 때, 생존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쉽게 달성하기는 어렵게 된다. 정치적 조직체를 이루는 평등한 개인들과는 달리 자연적 결사체인 가정의 구성원들은 동등하지 않다. 가정을 경영하는 가장에게는 강제와 폭력이 허용된다. 인간이 동물인 한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생물학적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과 상반되는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사적 영역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절대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지배와 정치적 영역은 상호배타적이다.”¹³⁾

고대인들은 이러한 사적 영역에 대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다. 하나는 사적 영역의 박탈적 특성에 대한 경멸이고, 다른 하나는 비박탈적 특성에 대한 존중이다. 사적 영역의 박탈적 특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드러난다. 박탈적(privative)이라는 말은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인간적인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타인이 보고 들음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공동의 사물세계의 증재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객관적’ 관계의 박탈, 삶 그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이 그것이다. 인간의 최상의 능력은 공적 영역에서의 행위를 통해 타인과는 다른 자신만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능력이

13)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80.

14)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12.

고, 사적 영역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다만 동물종의 하나인 인간종으로서 필연에 구속되어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사적 영역 내의 활동은 공적 영역의 활동보다 열등하다.

사적 영역의 비박탈적 특성도 역시 공적 영역과의 관련 속에서 드러난다. 공적 영역에서 논의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그것들이 적절히 다루어져야 할 은신처가 필요하고, 그러한 은신처의 역할을 사적 영역이 수행한다. 숨겨져야 할 것들이 숨겨져야만, 드러나야 할 것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공론 영역에서, 즉 타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보내는 삶은, 흔히 말하듯이, 천박해진다.”¹⁵⁾ 또한 사적 영역의 확립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날그날의 생계의 해결이 위태로워지고, 그렇게 되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영역은 신성시된다. 사적 영역은 어디까지나 공적 영역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유에서 존중받았다. 그런데 공적 영역의 지위가 사적 영역의 지위보다 높다고 할지라도, 고대인들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을 위해서 희생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 두 영역은 공존의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¹⁶⁾ 그래서 이 두 영역을 분리하는 경계선은 엄격히 보호되었고,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두 가지 질서가 서로를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사적 영역의 확립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난다. 소유는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로부터 각각의 영역은 그 고유한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아렌트는 근대 자본주의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소유가 부로 전환되고, 이는 사적 공간의 소멸과 공적 영역의 소멸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사회’가 자리잡게 된다. 여기서 소유가 부로 전환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공적 영역의 상실까지 야기하는가? 그리고 공적 영역이 상실된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사회’란 도대체 공적 영역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 소유와 부의 개념에 대해

15)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25.

16)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13.

각각 살펴보고, 소유가 상실되면서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 『인간의 조건』에서의 소유(property) 개념

3.1. 소유: 장소의 가짐

아렌트에 있어서 소유란 항상 ‘사적’ 소유이다. 왜냐하면 소유란 공적 영역으로부터 사적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적으로 무엇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⁷⁾ 사적 소유는 항상 공적 영역이 전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공적 영역이 없는 곳을 한번 생각해보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 그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타인이 없는 곳에서 어떤 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가족의 경우처럼 수적으로는 여럿이 모여 살더라도 모두가 한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나의 것을 보호할 목적에서의 소유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가족의 영역 안에서 나의 생존은 자동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개인은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지켜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또한 소유(所有)는 ‘장소의 가짐’이다. 입을 옷을 가지는 것, 나의 몸을 가지는 것, 나의 기억을 가지는 것 또한 내가 그것을 소유했다고 일컬어지게 마련이지만, 아렌트의 저작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소유 개념의 특징은 그것이 장소에 대한 소유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

17) 한나 아렌트는 소유 개념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곳에서는 아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집단적 소유는 엄격히 말해서 용어상 모순된다.”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322.) 개인이 무엇을 소유하듯이 공동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나 아렌트는 공동 소유권(public ownership)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Andrew Reeve, *Property*, Macmillan, 1986, p.36.) 소유란 공동의 세계로부터 자신의 것을 취하는 것이다.

적 소유란 “세계에서 차지하는 자기 자신의 구체적 장소”이며, “고정되고 확고히 자리 잡힌 세계의 한 부분”이다.¹⁸⁾ 그러므로 자신이 머물 거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소유주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소유가 장소의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장소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 실재이기 때문이며, 또한 장소는 땅에 속박된 것으로서 마음대로 그것을 이동시키거나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어서 살펴볼 부의 개념과는 달리, 소유는 구체적인 동시에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세계적 성격”을 갖는다.¹⁹⁾ 소유가 구체적이면서 지속성을 가지는 한에서 소유는 사적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존되게끔 한다. 그러나 소유가 세계적 성격을 가진다는 말은 소유가 세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소유는 가정에서의 생계유지를 더욱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다. 다시 말해 전혀 세계적 성격을 띠지 않는 삶의 필연성의 해결 과정, 생산-소비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세계에 또 하나의 지속성을 더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산-소비 과정을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 해나가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으로서 소유는 필요한 것이다. 소유가 세계성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세계 속에 놓인 하나의 견고한 세계여야만 생물학적 삶의 필연성이라는, 가장 절박하게 인간을 구속하는 인간조건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성찰에서 자각했던 가장 강력한 필연성은 항구적인 변동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에 스며들고 이를 유지하는 생존과정이다. 물론 생존 과정의 운동은 자동적이고 우리 자신의 활동들과 무관하며 거역할 수 없는 운동, 즉 철저한 절박성을 지닌 운동이다.²⁰⁾

18)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24, p.123.

19) “근대의 소유는 세계적 성격을 상실하고……”,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24.)

20) 한나 아렌트, 홍원표 옮김, 『혁명론』, 한길사, 2004, p.135.

아렌트는 결코 개체 보존과 종족 유지라는 삶 그 자체의 요구를 그것이 저급하다고 해서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필연성이 완전히 제거된 곳에서는 삶 그 자체가 위협받는다.”²¹⁾ 필연성이 가지는 추동력을 인정하고, 세계에 확고히 자리 잡힌 사적 소유를 통해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만 필연성을 넘어서는 자유의 가능성이 열린다.

아렌트에게 있어 소유가 장소 또는 부동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고대 그리스에서 발생한 구분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가시적 경계로서의 소유 개념은 고대 그리스 사회가 농업 사회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농업 사회에서는 수입의 원천이 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경작지를 가진다는 것은 거기서 소출될 노동 생산물을 먹고 살 수 있음을 의미했고, 땅을 가진 한, 생계의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땅의 소유는 신성시되었다.²²⁾

이처럼 소유가 자신이 거처하는 장소라는 제한된 의미를 가짐에 따라 사적 소유는 자동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아렌트의 소유 개념에 따르면, 근대의 소유 이론이 천착한 문제인 너의 것과 나의 것이 충돌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즉 소유권의 정당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입의 원천이 가족이 거주하는 땅의 조각과 일치하는 농업 사회에서만 소유는 필연성의 충족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다만 필연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소유 개념은 오늘날의 현실에 곧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21) 한나 아렌트, 이진우·태정호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p.124.

22) “가족은 신성한 불에 붙어 있고, 신성한 불은 땅에 붙어 있다. 따라서 땅과 가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맺어진다. 이곳은, 우월한 힘이 강요하지 않는 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영원한 거주지가 될 것이다. 그것은 가족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족의 재산이다. 단지 한 사람의 재산이 아니라 대를 이어 이곳에서 태어나고 죽을 사람들의, 다시 말해서 한 가문의 재산이다.” (퀴스텔 드 쿨랑주, 김웅중 옮김, 『고대도시 - 그리스, 로마의 신앙, 법, 제도에 대한 연구』, 아카넷, 2000, p.81)

3.2 자유의 전제 조건

폴리스가 소유를 감싸는 경계선을 신성한 상태로 유지시킨 것은 사적 소유 그 자체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사적 소유 없이는 공적 영역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적 소유의 신성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소유를 통한 필연성의 해결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소유는 세계의 특정 부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적 조직체에 소속되는 것, 즉 공적 영역을 구성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²³⁾ 소유가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소유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소유는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아렌트에게 있어 자유란 강제나 필연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의미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며 제2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만의 삶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자유는 욕구나 의지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실존의 객관적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필연성의 속박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유의 표지이다.

자유는 정의, 권력, 평등처럼 정치 영역의 수많은 문제와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혁명이나 위기의 시기를 제외하면 좀처럼 정치행위의 직접적 목표가 되지 않는지만 인간이 정치조직 속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실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삶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자유이며 그것이 경험되는 장은 행위이다.²⁵⁾

23)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15.

24)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19.

25) 한나 아렌트, 서유경 옮김, 『자유란 무엇인가?』, 『과거와 미래 사이』, 푸른 숲, 2005, p.199.

사적 영역은 필연성의 영역이고 공적 영역은 자유의 영역이다. 그런데 인간 존재의 가장 높은 성취는 자유의 실현이고, 이는 곧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삶을 사는 것이다. 사적 영역에서 필연성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가능하지 않다. 필연성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사적 장소를 가지지 못한다면 정치적 삶을 사는 것도 불가능해지므로 소유는 자유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소유의 신성함은 소유 그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재적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한에서만 신성하다. 자유는 소유로부터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토대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때에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는 자유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아렌트의 저작에서 공적 영역은 빛의 세계로 종종 비유된다. 빛의 세계가 있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의미에서의 ‘어둠의 공간’이 바로 사적 공간이며, 이는 소유를 통해 확립된다.

4. 『인간의 조건』에서의 부(wealth) 개념과 탈소유화 과정

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구분을 떠올려 보자.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어떤 사물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사용가치란 그 사물 자체에 내재하는 가치이나, 교환가치는 그것이 시장에서 교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치이다. 내재적 가치인 사용가치가 사물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의존한다면, 교환가치는 사물의 외부에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교환의지에 의존한다. 교환가치는 언제고 변할 수 있으며, 화폐와 같은 일정한 교환의 매개체로 환산될 수 있다. 문제는 사물들의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든 사물의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로 치환되어버릴 수 있다는 데 있다.²⁶⁾ 그 시점이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26) “사적 영역이 사회적 영역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 소유와 부의 구분은 무의미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구체적인 ‘대체가능한’ 사물은 ‘소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대체가능한 사물은 그것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항상 변하는 교환가능성에 의해 결정되는

구체적 실재인 소유가 더 이상 세계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부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어떤 사물은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또는 나에게 장차 부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쓸모있는 것이 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성격이다. 위에서 살펴본 소유의 대상으로서 부동산은 본래 한 자리에 고정되어 사적 영역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던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부동산은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높은 가격에 처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산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동산의 성격을 가진 부동산이 그것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점이란 단지 조금 더 안정적인 부를 보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부는 소유와 다르게 구체적인 실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 현재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만을 의미한다. 부는 비실재적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세계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한다. 삶의 단단한 뿌리의 역할을 하는 소유와는 달리 부 또는 내가 가진 부의 총액은 항상 변동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것이다.

아렌트의 저서에서 부는 대부분 ‘축적(accumulation)’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부는 쌓아올릴 수 있는 것이다. 부는 무한한 증식이 가능하다. 무한한 증식이 가능하다 함은,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를 가질 때, 그것의 목표 달성이 결국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의 축적 과정에 사로잡힌 인간은 결코 어느 단계에서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다. 부의 축적 과정은 무한히 지속될 수 있다.

소유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핵심적인 염려와 걱정은 자연의 풍부나 삶의 단순한 필연성이 아니라 여전히 세계이다. 주된 관심이 소유가 아니라 부의 성장과 축적과정 자체가 된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진다. 부의 축적과정은 종의 삶의 과정만큼이나 무한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무한성은, 사적 개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며 무한한 시간도 갖지 못한다는 불편한 사실 때문에, 도전받고

사회적 가치만을 획득한다.”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23.)

방해받는다. 제한된 개인의 삶 대신에 전체로서 사회의 삶을 거대한 축적과정의 주체로 생각할 경우에만, 이 축적과정은 개별적 삶의 기간과 개인의 소유가 부과하던 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그리고 최대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²⁷⁾

아렌트에 의하면 과정 개념은 근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개념이다. 과정은 항상 현재진행형이다. 과정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과정이라고 불리지 않는다. 즉, 과정은 그것이 과정인 한에서 무한성을 속성으로 가진다. 아렌트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두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삶의 과정’이고 또 하나는 ‘부의 축적 과정’이다.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끝없는 생산-소비의 과정에 종속된다. 과정은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한히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부의 자동적 성격은 ‘부가 부를 낳는다’는 말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힘으로 여기에 제동을 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유의 확립으로 삶이 부과한 필연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소유주는 사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위에서 살펴 보았다. 그러나 부의 축적을 염두에 두게 되면, 그 과정의 무한성에 휘말려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여유를 얻지 못하게 된다.

아렌트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의 전통적 의미에서의 소유는 근대 초기의 종교개혁이 야기한 농민의 재산 몰수에 힘입어 점차 사라지게 된다. 소유의 강제적 박탈은 소유주로 하여금 공론 영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사적 영역을 사라지게 하는 동시에, 생계 유지에 더욱 절박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끔 하였다. “문자 그대로 그날 그날 빌어먹고 사는 새로운 노동계급은 삶의 필연성이 강요하는 절박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삶의 과정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지 않는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도 소외되었다.”²⁸⁾ 이러한 탈소유화는 한 개인에게는 비극이었을지 모르나,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부를 증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유를 박탈당한 인간은 이제 자신의 몸뚱아리 하나만을 ‘소유’하게

27)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72.

28)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320.

된 셈인데, 자신의 몸을 유일한 생산수단으로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이끌고 가정 밖으로 나와 노동을 수행한다. 노동이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나왔을 때, 노동은 분업의 형태로 조직화된다.²⁹⁾ 이 때문에 노동생산성은 끊임없이 가속화되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아올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하여 근대 초기 사상가들이 목격한 사회적 부의 믿을 수 없는 증대는 그들로 하여금 인간 노동력을 찬미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으로 노동이 조직되자 개인의 노동력에 자연적으로 내재하던 풍부한 잉여가 합쳐져 사회적 부를 생산하게 되었고, 기계의 자동화 등으로 부의 축적 과정은 더욱 촉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축적은 “새로운 소유로 이어지거나 부의 새로운 분배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많은 부의 축적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재투입”된다.³⁰⁾ 이 때 개인들은 노동이 완료되고 나서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자신의 장소를 박탈당한 개인의 불안한 생존기반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의 축적 과정 자체가 실재적 소유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소유한다는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세계적인 것을 가짐을 의미하는데, 조금이라도 지속성을 가지는 것은 부의 축적에 방해가 될 따름이다. “부의 축적 과정은 세계성의 희생 위에서만 가능하다.”³¹⁾ 왜냐하면 부의 축적 과정에서 무한한 생산성을 위해 그에 비례하는 무한한 소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되도록 빨리 소비되어야 한다. 더 빠르게 소비될수록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그래야만 더 많은 부가 창출된다.

5.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소멸, 그리고 사회의 발생

탈소유화로 인해 사적 영역이 담당했던 필연성의 해결은 공적인

29)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100.

30)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321.

31) Loc.cit.

관심사가 된다. 이로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은 붕괴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엄격히 분리됨으로써만 두 영역은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구분이 해체됨에 따라 두 영역은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아렌트의 주장이다. 생물학적 삶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은 엄연히 사적 영역 내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적 영역은 자유의 영역으로, ‘좋은 삶(bios)’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유의 상실은 사적 영역 내의 관심사를 공적 영역으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적 영역이 담당했던 고유한 기능을 훼손한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공적 영역은 정치의 영역이다. 따라서 소유의 상실은 진정한 정치가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사라짐과 동시에 출현한 제 3의 영역은 사회적 영역이다. 사회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집단을 이름으로써 사회는 자동적으로 완성된다. 사회는 “유기적 전체”이며 거대한 “한 사람”과도 같다.³²⁾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이 거대한 생명체의 보존을 위한 세부적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와 같다. 이 생명체는 부의 축적 과정이라는 ‘삶의 과정’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는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목표가 된다. 오늘날 자주 목격할 수 있는 슬로건은 ‘사회통합’인데, 사회통합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고유한 유일성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더 잘 기능할 수 있게 된다. 사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적 영역에 해당했던 가정 조직체의 확장일 뿐이다. 가정이 필연성의 해결이라는 절박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결집된 모임이듯이, 사회는 하나의 이해, 하나의 목적을 가질 뿐이며, 이는 다원성이라는 인간 조건에 부응하는 조직체가 아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정치의 영역은 수단-목적 계열 바깥에 존재해야 한다.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때 다원적인 개인들의 말과 행위는 비로소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2) Gunnar Myrdal, *The Politic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3, p.149.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사회가 모든 발전단계에서—예전에는 가정과 가계가 그랬던 것처럼—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사회는 각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한 행동을 기대하며, 수많은 다양한 규칙들을 부과한다. 이것들 모두는 구성원을 ‘표준화’시켜 행동하도록 하는 경향성을 가지며 자발적인 행위나 탁월한 업적은 갖지 못하게 한다.³³⁾

모든 활동이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의 일환이 되어버린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유일한 척도가 된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인간상에 따르면 생물학적 삶의 조건에만 매여 있는 삶은 진정한 인간의 삶이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 생물학적 삶의 사멸성을 극복하고 불멸성을 추구하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삶과는 완전히 분리된 말과 행위의 공간을 가져야만 한다. 말과 행위로 구성되는 “정치는 결코 삶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으며”³⁴⁾, 삶을 초월해야만 한다. 노동하는 동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정치의 역할은 고적해야 사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만다. 이러한 정치는 자유의 의미를 갖는 진정한 정치가 아니다. 국가가 로크의 개념인 ‘common wealth’에 그치고 말 때 국가의 정치적 성격은 완전히 상실된다.

사회가 발생하면서 사적 영역 내에 국한되었던 관심사가 공적 영역의 문제로 떠오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조직형태가 공공의 조직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회의 발생 이전에 정치의 영역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로 구성되는 반면, 가정 내에서는 지배—피지배 관계가 허용되었다. 가장의 전체권력이 사회로 확장될 때, 전체주의가 대두할 수 있다. 전체주의는 실질적인 일인 지배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추정된 경제적 사회이익”에 의해 모두가 하나의 의견만을 가지도록 강요받을 때, 이러한 익명의 지배가 더욱 잔인한 독재가 될 수 있다.³⁵⁾

33)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93.

34)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90.

6. 맺으며

인간이 사멸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불멸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멸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불멸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자연의 필연성에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존재가 위해서는 필연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자유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필연성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각자 상이한 질서에 속하도록 위치시킴으로써 자유는 최대한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아렌트 통찰의 핵심이다. 진정한 공적 영역의 확립을 위해서라면 필연성의 제거가 답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필연성을 제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적 소유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유가 부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사적 영역이 몰락함과 동시에 공적 영역도 몰락하고 그 자리에 사회가 들어서게 된다. 자유를 위해 소유를 확립하여 결과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우리는 부를 위해 자유를 희생시킨다. 인간이 정치의 영역에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경제 원리를 최고 원리로 삼는 사회의 기능적 존재로 머무른다면, 인간은 더 이상 ‘완전한’ 인간일 수 없다.

부의 축적 과정에 이미 휘말려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 농업 사회로부터 발생한 소유 개념에 의존하여 자유를 현실화시킬 방법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 사회를 바탕으로 인간 조건을 원래의 상태에서부터 추적함으로써, 상실되고 숨겨져 왔던 진정한 인간 조건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 아렌트 통찰에 도움을 얻어, 매순간 변하는 인간 조건과 결코 변경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 무엇인지, 21세기의 관점에서 다시 고찰해보아야 한다.

35) 한나 아렌트, 앞의 책, p.93.

참고문헌

-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옮김, 한길사, 1996.
- 한나 아렌트, 『과거와 미래 사이』, 서유경 옮김, 푸른숲, 2005.
- 한나 아렌트, 『혁명론』, 홍원표 옮김, 한길사, 2004.
- 리처드 파이프스, 『소유와 자유』, 서은경 옮김, 나남, 2008.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창우·김재홍·강상진 옮김, 이
제이북스, 2006.
- 푸스텔 드 쿨랑주, 『고대도시 - 그리스, 로마의 신앙, 법, 제도에 대한
연구』, 김응중 옮김, 아카넷, 2000.
-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 Andrew Reeve, *Property*, London: Macmillan, 1986.
- Gunnar Myrdal, *The Political Element In The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3.
- 이은아, 「아렌트 정치철학에서 표현과 소통의 문제」, 서울대학교 대
학원, 2005.
- 박혁, 「정치 현상으로서의 자유」, 『사회와 철학』 제18호, 2009.10,
pp.417-451.